



전라예술제, 정읍서 '문 활짝'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개최
자생화 전시회 등과 연계
불거리·즐거거리 '다채'

'뿌리 깊은 천년 왕도 꽃피우자 전라예술'을 주제로 전북도 예술인들의 한마당 큰잔치인 제 56회 전라예술제가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정읍시 천변 어린이 축구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예술제는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선거현)가 주최하고 정읍시와 전북도가 후원한다. 특히 올해 예술제는 정읍 벚꽃축제와 자생화 전시회·자생차 페스티벌과 연계해 더욱 다채



롭고 풍성한 불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첫날 11시 전북민속예술축제를 시작으로 연극, 무용, 음악, 국악 공연이 매일 오후 2시, 7시 반에 천변 어린이 축구

장 특별무대에서 펼쳐진다. 또한 미술과 사진, 문인, 건축 등 다양한 작품이 시립미술관과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전시되고, 영화CG체험 활동에 참여한 관람객들은 오후 4시 정읍CGV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최신 영화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생기 시장은 "우리 정읍에서 열리는 이번 전라예술제를 통해 정읍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관광객들이 전북 문화예술을 만끽함은 물론 깊어가는 봄의 정취를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만끽할 수 있는 전라예술제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정읍시민은 물론 전북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공연 감상의 즐거움과 함께 향긋한 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춤·관현악·창극 '어우름'

도립국악원 목요예술무대 상반기 공연



1994년 토요상설로 시작된 목요국악예술무대는 전통예술의 충실한 보존과 전승, 미래의 전통을 만들어가는 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이다.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은 '어우름'을 주제로 상반기 목요국악예술무대를 꾸려간다. '어우름'은 국악원의 3개 예술단이 하나로 합쳐져 무대를 준비한다는 의미를 담아 창극단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다섯 바탕 공연과 단원들의 개인기량을 선보이는 무대를, 관현악단은 심내악과 산조를, 무용단은 전통춤의 향연으로 구성된 가·악·무의 무대를 순환하며 선보인다.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상반기 목요예술무대의 첫 무대는 무용단의 '춤·본류'. 이는 중정제와 민속무용까지 다양한 레퍼토리의 춤을 포괄한 무대로 전통춤이 가지는 정·중·풍의 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이날 공연은 공중정제 '춘앵무'를 시작으로 검기무의 서막을 장식하는 춤으로 승전과 절대 권력을 상징하는 '궁중검무', 선비의 한량기가 있는 멋 춤으로 예쁜 발사위 동작과 절도 있는 춤사위가 조화를 이루는 '입춤', 수건을 들지 않고 몸의 움직임을 극대화시켜 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호남살풀이', 호남지방 지방 춤의 성향을 잘 간직하고 있는 '호남산조', 전북을 대표하는 춤으로 자리매김한 '금과한량무', 타악의 다양한 가락에 어우러지는 역동적인 춤사위 '버꾸춤'으로 구성된다. 국악원은 오는 5월 4일에는 3단 합동공연 '영동발랄 전통'을, 18일에는 무용단의 '원향-춤 맥을 잇다'를 25일에는 창극단의 '춘풍의 소리 길을 찾아서-사계동행' 공연을 이어간다. 또 6월 8일에는 관현악단의 '정의 울림'을, 22일에는 관현악단의 '소리 공유'를, 29일에는 창극단의 '판소리 다섯바탕-남자 소리꾼, 그 장중함에 대하여' 무대를 마련한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 고창 공음면 미래마을회관에 작은도서관 기증

문화 오지를 찾아 작은 도서관 기증운동을 펼치고 있는 전북문화관은 고창군 공음면 미래마을회관(이장 김영호)에 4번째 작은 도서관을 기증했다고 3일 밝혔다. 미래마을은 전라남도도와 접경지역으로 고창에서도 오지마을로써 문화해택이 열약한 지역이다. 문화관은 이 지역의 주민들에게 책 읽는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 전북 문인들과 도서출판 미래엔의 도움으로 500권의 도서를 기증했다. 이날 기증된 책은 아동도서를 비롯해 주부·노인들의 여가와 취미 생활을 돕는 책까지 다양한 책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작은 도서관 기증은 도민들의 문화적 정서 향유를 위한 문화관의 중점사업 일환으로, 문화관은 올해까지 도서실 6곳 기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조선시대 여류시인 이매창, '한 쪽의 배꽃으로'

부안군, 영정제작 발표회

"이화우 흠날릴제 울며 잡고 이별한님 추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지 천리에 외로운 꿈만 오라가라하더라" 조선시대 황진이와 쌍벽을 이룬 여류시인 이매창(梅窓) 영정이 한 쪽의 배꽃으로 되살아났다. 부안군(군수 김중규)은 부안문화원과 지난 2015년부터 당대 최고의 여류시인 이매창(1573~1610)을 선양하려고 영정제작 사업을 시작 3일 매창 영정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영정 제작자인 김희석 화백(수묵화, 미술사학과 박사) 매창영정에 대하여 전체적인 물감안료는 천연물감을 사용했고, 16세기 가계모양의 실체를 재현했으며, 얼굴과 손은 부인의 황토를 사용하여 맑고, 곱고, 그윽하고, 지극함을 표현했



다고 말했다. 영정을 보면 눈은 쌍꺼풀 없이 예쁘고 고우며 손은 왼손이 오른손을 감싸며 상대방에 대한 지극한 배려가 보이고 복색은 연로랑 저고리와 쪽빛의 치마를 입고 있다. 이에 부안군수는 "매창사후 400년만에 영정을 제작하여 부안 정명 600년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영정 제작 과정을 자문해준 변영섭(전)문화재청장은 "영정 속 매창은 춤을 추고 거문고를 타며 땀 흘려 짓어있는 모습은 영정에 생명력을 담았다고 가히 미술사적 도전으로 평한다"고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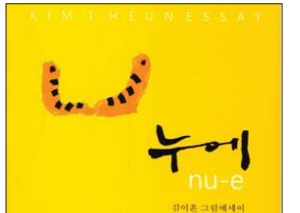
무주산골영화제 공식 포스터 공개

제5회 무주산골영화제 '동화 속 영화 마을'을 콘셉트로 한 공식 포스터를 3일 공개했다. 무주산골영화제에 맞게 아기자기하고 다채로운 색감이 눈에 띄는 포스터는 과거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산골 극장을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과 의인화된 동물들이 어울려 마을 축제의 활기찬 분위기를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극장과 마을 뒤편에 자리한 초록빛의 산과 풍성하게 펼쳐진 나무들을 통해 영화 마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산골영화제는 본격적인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김이흔 시인, 그림 에세이집 '누에' 발간

부안 출신인 김이흔(본명 김형미) 시인이 그림 에세이집 '누에 Nu-e'를 냈다. 이번에 출간된 책은 작가가 완주 공동문화창조공간 '누에'에서 발상을 얻어 쓴 것으로 작가의 고향 명물인 누에에 대한 단상들을 담아낸다. 이번 책에서 시인은 '진짜 자신의 눈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을 읽는 이들과 같이 공감하게끔 에세이 내용에 맞춰 독창성 있는 독특한 그림과 함께 동화적인 느낌으로 직접 그림을 그렸다. 에세이집에는 누에치기의 시조인 누조에 관한 내용부터 누에를 기르는 어머니 잠모, 누에가 부르는 노래에 이르기까지 총 11부로 나누어 실려 있다. 김이흔 작가는 2000년 전북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2003년에는 문학사상시 부문 신인상을 수상했다. 현재 한국작가회의 및 시인협회·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산 밖의 산으로 가는 길'과 '오동꽃 피기 전'이 있다. /정해은 기자





2017.4.7(금) ~ 4.12(수) 6일간
정읍천변어린이축구장 및 벚꽃로 일원

개막식 및 축하공연 4.7(금) 18:30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4.7(금) ~ 4.9(일)
벚꽃 버스킹, 버블쇼, 키다리 배에로 풍선마임, 석고마임
캐릭터 인형탈, 이벤트 존, 봄노래 존, 로맨틱 포토존

벚꽃 야간 경관 조명 4.1(토) ~ 4.16(일)
제56회 전라예술제 4.8(토) ~ 4.12(수)
제13회 자생화전시회·제6회 자생차 페스티벌 4.7(금) ~ 4.12(수)
체험, 간식먹거리 및 농·특산물 판매 4.7(금) ~ 4.12(수)

차량통제안내 : 4.7(금) 22:00 ~ 4.9(일) 22:00
- 벚꽃로 걷기 좋은 거리 : 정주교 ~ 정동교(1.2km)

초대가수공연

송대관	김용임
마틸다	불독

정주·조연비/오대성/양재동